

인구 늘어도 5천만명 안될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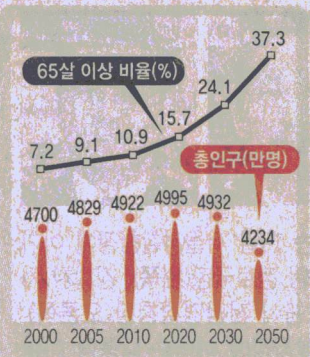
통계청, 출산율 저하 탓 2020년 4995만명 '정점' 추정

출산율이 가파르게 낮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앞으로도 5000만명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 이란 추정이 나왔다. 또 65살이 넘는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늘면서, 지금은 15~64살의 생산이 가능한 인구 7.9명당 1명꼴로 노인을 부양하면 되지만, 2030년에는 2.7명,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극심하게 남자아이를 선호했던 까닭으로 결혼 연령층(남자 26~30, 여자 24~28살)의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수)가 2006년 102.6에서 2009년 114, 2012년에는 124까지 올라가 몇해 뒤면 짝을 찾지 못하는 성인 남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에도 2017년 108.7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124(2026년)까지 올라간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장래 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 4829만명에서 2020년 4995만명까지 늘어난 뒤,

총인구와 65살 이상 인구 비율 전망



<자료: 통계청>

이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1년 말 추계 때와 견주어 우리나라의 인구정점 도달 시기가 3년 앞당겨진 것이고, 인구 최대치도 당시 예상했던 5068보다 72만명 적은 것이다. 통계청은 "2001년 말 추계했던 것보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5살)에 낳을 평균 출생아 수'가 줄어 추계 결과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 2면으로 이어짐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